

SERMON 18 JUNE 2017 40TH Anniversary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40 년 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40 년의 시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아마 유나이팅 교회는 아직까지도 역사가 짧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사들은 유나이팅을 제외한 다른 교단은 모르고 있을 것 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또는 "회중교" 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사시고 계셨더라면 40 년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그러나 그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었다고 이야기 할 것 입니다. 저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있는 거주자 그룹의 매우 기독교적인 상황의 일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40 년 후에 시드니에 있는 Uniting 교회에서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40 년 전에 이 새롭게 개종한 교회에 대한 기대는 높았습니다. 수년 간 동안의 준비, 기도,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가까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Basis of the Union"라는 위대한 문서에서 돋보이는 구절들 중 일부는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 있는 사람"과 "순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는 교회이자, 포괄적인 교회였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우리는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비록 그 구절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40 년 전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기념일들이 기념되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취임식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특별한 모임의 숫자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 주년을 기념함에 따라, Uniting 교회는 구조 조정과 재고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선교적이고, 젊은이들에게 집중하도록 격려 받고,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그것을 알려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시기입니다.

40 년 전에 핵무기의 위협은 전면전이었습니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고, 동 아프리카와 서부 베를린 사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산 주의자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의 일부가 아니었고, 이슬람교는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9/11 사태도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본적인 자원의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망명자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40 년 전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다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 년 전, 데이비스 맥코헤이 목사는 취임식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 "선교의 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시대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코헤이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진술은 아마 승리의 진술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권력과 영광을 물리치고, 보잘 것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교는 영적인

침략이 아닙니다, 인간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하세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때 혼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의 안식일을 알고, 죄인의 적대감을 알고, 군중의 냉담함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때 혼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시는 혼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단어들은 40 년이 지나면 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벽 너머에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외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보를 상징하는 것들로 잃어버렸고 평화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거나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한 환희와 기쁨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갈등과 분노의 정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표면 바로 밑에 놓여 있는 분노의 정도에 의해서 그들 주변에서 보는 것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수백만의 생명체들과 그 행성 자체의 생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더 이상 제도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데이비스 맥코헤이의 말씀을 잡고 이 시대를 위해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나열한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의 한 단면입니다. 그 시대의 유혹은 언론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비관적인 사람을 아시는지요, 어떤 사람에게겐 항상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들은 생명선을 빼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인지 알지만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 잔에 물이 항상 반 만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제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행사에 참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저는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에서 금식을 하는 공식적이지만 매우 친근한 식사 자리에 참여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 변호사이자 교육자인 타마나 라고 불리어지는, 그녀의 히잡 밑에서 눈에 띄는 마스크라를 하고 있는 연설가를 포함한 몇몇 훌륭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주제는 포용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에 접근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교도들이

신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슬람 교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축복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아침에 들은 평등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널리 사랑 받는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것 입니다; 연합함으로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 것 입니다. 분명 사랑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단어들은 따라야 할 소명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연합은 오늘날 단지 Uniting 교회만이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합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벽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의 다른 면은 도처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종종 표현을 추구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이며, 윤리적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40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의 문화적 다양성이 색깔과 삶, 음악, 노래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40 년 동안, 우리는 과거에 축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비록 상황이 매우 다를지라도,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데이비스 맥코헤이는 승리주의자로서가 아니라 보잘 것 없음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심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힘세고 의기양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초대하신 분을 따르기를 추구하는 순례자로 겸손하고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10 년 안에 유나이팅

교회인 LUC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고, 40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나 일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작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